

특집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국주의의 여성수난

## 한국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제국주의의 남근(Phallus) 읽기

김승희

특집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여성수난

## 한국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제국주의의 남근(Phallus) 읽기

김승희

### 국문초록

한국 여성시에 드러난 '여성 수난'의 문제는 제국주의라는 하나의 층위에서만 분석될 수 없다. 여성의 수난은 세국주의의 공격적이고도 남근중심적인 침탈에시만이 아니라 한국내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별 의식, 제국의 경제적 도움으로 시작된 한국의 근대화 과정, 전 지구적 자본제와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 중층적으로 함께 고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는 한국 현대 여성 시인 중에서 한국 역사와 근대화 과정 속에 드러난 제국주의적 권력을 가장 날카롭게 고발한 고정희 시인의 시 텍스트, 「지리산의 봄」과 「여성 해방 출사표」에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가부장제적 자본주의가 어떻게 한국 여성의 수난을 구성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고정희의 연작시 「밥과 자본주의」에서 남근적 폭력을 가진 가부장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하위주체로 자리할 수 밖에 없는 아시아 여성의 수난들을 분석한다. 또한 김승희의 시 텍스트 「문 밖에 계시는 어머니」에서 민족주의라는 동일성의 환상 담론이 어떻게 제국의 권력으로 오염된 여성의 몸을 추방해왔는지를 분석하고 기저층에서 정신병자 미군 마이클 이병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윤금이의 '몸'을 이중적으로 식민화되어 있는 민족의 알레고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분석한다. 또한 제국주의의 대중문화가 일상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위성 미디어,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제국의 유혹의 호명 기제를 살펴봄으로써 탈식민주의적 페미니

즘의 인식의 긴요함을 설명한다.

주요어: 제국주의, 민족주의, 가부장 이데올로기,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Postcolonial Feminism), 남근 (Phallus), 민족의 알레고리, 남근-이성-중심주의(Phallogocentrism), 전지구적 자본주의, 호명 기제(Mechanism of Apellation), 중층 결정(Over determination), 은유, 환유.

## 1. 제국주의, 민족주의,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와 남근<sup>1)</sup>중심주의

한국 현대 여성시에 드러난 '여성 수난'의 문제는 제국주의라는 하나의 담론의 층위에서만 설명될 수 없다. 제국주의라는 담론의 층위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전통적인 성별 의식, 제국주의와 근대화, 민족주의 담론 등의 복합적 층위와 불가피하게 얽혀있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여성의 수난은 제국주의가 이 땅에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연관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전지구적 자본제와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 함께 고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

1) 남근(Phallus)이란 페니스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남근의 표상을 뜻하는 용어이다. 팔루스는 남성의 성, 남성이 가지고 있으며 여성에게 행사하는 권위와 권력, 일반적인 권위와 권력, 개인성, 모든 종류의 통일성, 신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상징되어 왔으며 보통 남성 권력을 팔루스로 은유한다. 남근중심주의(Phallogocentrism)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에서 유추하여 만들어낸 용어로서 남성이 여성 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보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적인 것이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한 정통적, 보편적인 참조점이라는 믿음에 대한 명칭이다. 이 개념을 제국/피식민지에 대입하여 '제국'이란 기호를 중심, 권력, 지배, 절대성, 보편성, 권위의 시니피에를 담지한 기호로 보고 그 제국주의 속에 갖는 지배와 착취의 권력이 남성중심적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분리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제국주의의 남근 읽기'라는 제목을 사용한다. Joseph Childers and Hentzi, ed., *The Columbia Dictionary of Modern Literary and Cultural Critic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5. 참조.

한국 현대 여성 시인 중에서 한국 역사와 근대화 속에 드러난 제국주의적 폭력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제국주의 권력이 자국내의 가부장제와 또한 근대화 프로젝트로서의 자본주의와 얽혀 여성 수난의 운명을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를 시 텍스트에서 날카롭게 고발한 시인으로 고정희를 들 수 있다. 그녀는 1987년에 출간된 『지리산의 봄』과 1990년 출간된 『여성해방출사표』에서 한국 역사와 근대화 프로젝트 안에 숨어있는 제국주의적, 남근중심주의적, 민족주의적 담론의 실상을 밝혀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여성 수난을 구성해 왔는지를 노래한다.

정녕 장렬하구나, 어진 따님들이여  
 그대 단지 여자로 태어나  
 남자천하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되고  
 식민치하 망국충정의 먹이사슬이 되었건만  
 죽어도 죽지 않고 되살아나  
 금수강산 하늘로 땅으로 강물로 되살아나  
 삼대 치욕의 조선사 넓은 치마에 덮어주나니,

원나라 몽고족에 헌납된 고려의 딸들이여  
 삼천오백만 자매의 이름으로  
 사대주의 선비정신 위선을 교수형에 처하노라

왜놈제국 세계침탈 색욕에 유린당한 정신대 딸들이여  
 삼천오백만 자매의 이름으로  
 지사주의 매국충정 혈통을 참수형에 처하노라

매판자본 정경유착 아방궁에 바쳐진 기생관광 딸들이여  
 삼천오백만 자매의 이름으로

친일 친미 매국노 전통을 화형에 처하노라

-고정희 「여성 해방 투쟁을 위한 출사표」 중에서

이 텍스트에서 고정희는 ‘해동 조선의 딸들’의 수난적 운명을 구성하는 힘을 외세 못지 않게 남자 독재와 ‘가부장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남자 독재’ ‘가부장권’이 역사적으로 여성들을 어떠한 하위 주체로 몰아세워 왔던가를 고찰하고 있다. ‘남자 천하 약육강식의 먹이’이자 ‘식민치하 망국충정의 먹이사슬’로서 살아온 여성들은 국제정치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난마저도 그 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가령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성들 중에는 속환되어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더럽혀진 몸이 부끄러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민족과 외세 사이의 역사적 연옥 속에 끼여 **방황하는** 추방자 여성들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외국 남성들에 의해 정조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딸들의 육체의 정절을 중요시 여기는 가문과 국가로 돌아갈 수가 없었으며 **‘환향녀’**<sup>2)</sup>- ‘화냥녀’<sup>3)</sup>라 불리워지는 수도

- 
- 2)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성들이 돌아왔을 때 **환향녀(還鄕女)**라고 하여 사대부가에서는 물론, 사회 전체가 ‘흠 있는 여성’이라하여 받아 들이려 하지 않았다.
- 3)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끌려갔다 **환향**하게 된 여자를 환향녀(還鄕女)로 이름 지었다가 어의(語意) 변질을 통해 화냥년으로 바뀌 부른 것도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울타리에서 이탈된 구성원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도덕적 경계를 삼고자 한 것이었다. 충?효?예를 기본 덕목으로 삼았던 조선조의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나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절대적인 것이었다. 국어 사전에 ‘화냥녀’란 ‘화냥기가 있는 여자나 화냥질을 한 여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고 ‘화냥기’란 ‘제 남편 이외의 남자와 정을 통하는 바람기’라고 풀이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야후 국어사전) ‘고향에 돌아온 여자’라는 기의를 가진 **환향(還鄕)녀**라는 시니피앙이 ‘제 남편이 아닌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바람기있는 여인’이라는 어의가 왜곡, 변질되는 과정에서 작용했을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여성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남근중심주의적 순결 이데올로기를 읽어낼 수 있다. 언어란 일차적으로 시니피앙과 시니피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2차 의미작용 체계 안에서 그 함의가 구축될 때 한 사회가 가진 이데올로기가 작용하여 시니피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정치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롤랑 바르트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 안에서

때문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추방자가 되어서 이산(diaspora)의 삶을 살아야 했다. 환향녀-화냥년의 음의 변화와 어의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기호의 은유론적 전환을 통해 한국 여성의 수난이 단지 제국이나 외세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자국의 남성중심주의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수난을 구성하는 것은 제국의 가해적 권력만이 아니라 자국 민족주의 안에 들어있는 남성중심주의 담론들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왜놈제국 세계침탈 색욕에 유린당한 정신대딸들<sup>4)</sup>”에게도

---

신화가 만들어지는 경우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인 기호라는 3가지 요소에 의한 의미작용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신화가 독특한 것은 그것이 전부터 이미 존재해있는 기호적 연쇄를 바탕으로, 그위에 구축되어진 한단계 더 높은 기호체계로서 항상 작용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한 사회에 자연스럽게 군림하는 신화를 만들어내는 2차 의미작용 안에 정치적이고 경제적,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바르트는 말한다. 테렌스 호옥스, 오원교 역, 「구조주의와 기호학」(신아사, 1986) 참조.

그러한 시각에서 환향녀-화냥녀로의 기표 변질과 기의 변질에서 한국 전통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고향을 떠났다 돌아온’ 여성들에 대해 순결, 정절 이데올로기와 일부종사(一夫從事) 이데올로기 등 남근중심주의를 엄격하게 작동시켜 그들을 버친 한 타자, 주변부적 추방자로 내몰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 4) 한국사회에서 대개 ‘정신대’라는 용어는 군대 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자발적으로 몸을 바친 군대’라는 의미의 ‘정신대’는 1938년 5월에 발효된 일본제국주의의 군사총동원령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정신대는 두 그룹, 즉 근로 정신대와 일본 군대를 위한 성적 위안부로 나누어져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진성, 여순주, 「여자근로정신대의 실상」, 『청산하지 못한 일제 시기의 문제』, pp.225~273 참조.

군 위안부로서의 정신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사이 일본 제국주의 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군대를 위한 성 노동을 했던 여성들을 가리킨다. 8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자발적으로 몸을 바친 군대’라는 ‘정신대’라는 기호 속에는 ‘성적 위안부’를 가리키는 아무런 시니피에가 들어있지 않지만 앞서 말한 바르트의 2차 의미작용을 만드는 과정을 참조해 본다면 “성적 위안부들이 일본제국의 군대를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적 위안을 제공했다”라는 애국과 희생 신화를 기호 생성의 2차 의미 작용 안에 생산해 넣었음을 알 수 있다. 바흐친의 말대로 우리는 기호를 발견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여성 수난을 고정희 시인은 단지 제국주의에 의한 정치적, 군사적 힘의 불균형에 의한 여성 수난으로만 읽어내지 않고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자국의 가부장제 안에 깃든 무능한 지사주의, 남근중심적 단일혈통주의, 여성 정절과 순결 이데올로기를 읽어낸다는 점에서 그녀가 단순히 여성 수난을 악마적인 제국주의의 탓으로 돌리고 제국=중심, 악, 폭력, 가해자로 등식화시키는 단순한 민족주의 페미니즘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연에서는 “매판자본 정경유착 아방궁에 바쳐진 기생관광 딸들이여”에서 볼 수 있듯 그러한 역사의 연옥을 떠돌아야만 했던 여성 수난이 산업 발전에서 주변부였던 나라가 근대화,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사 정부가 미국 자본과 일본 자본에 기대어 시작했던 야심찬 근대화 프로젝트 과정에서도 역시 여성의 몸은 억압과 착취를 겪고 있는데 그것은 몽고족의 공녀나 정신대와는 달리 국제적인 정치, 군사적 지배체계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의 소외 계층으로서의 수난으로 성격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하에서 식민화되는 제3 세계 여성의 몸과 착취되는 (성)노동은 시인 고정희에 의해 일찍이 담론화되었다. 그러나 이 시 텍스트에서 시인은 근대화 추진 과정 속에 깃든 자본주의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젠더화되는 노동<sup>5)</sup>의 성격

---

하는 곳에서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다. 정신대라는 기호가 근대를 위한 성적 위안부와 동일한 것으로 의미 변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일본 군국주의의 신화 생성, 즉 성적 위안부들의 성 노동이 자발적이었으며 애국의 숭고한 한 행위였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발견한다.

- 5) 젠더화된 노동이란 자본주의 가부장제 생산양식과 관련하여 그 하위층 개념을 여성에게 적용하고 여성의 몸/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스피박의 용어이다. 노동 개념을 주체와 연결시키는 개념이 바로 스피박의 ‘하위 주체’(Subalterm) 개념인데 스피박은 제3세계 여성을 하위 주체로 명명하면서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주의 가부장제 생산양식과 여성 착취의 문제를 설명한다.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몸의 유희론」,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여이연, 2000) pp.154~155 참조.

‘하위주체’란 말은 그람시의 용어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복종해야 하는 한 사

까지를 인식하지는 못한다. '기생관광의 딸들'의 수난을 곧바로 '친일친미 매국노 전통'에 의한 것으로 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각은 자국보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제국을 악, 가해자, 지배자로 보는 메니키안<sup>6</sup>적 도식과 '민족은 하나이며 동일한 피해자'라는 통합성의 환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보여주기 도 하지만 고정되는 대체로 제국주의 자본제와 자국 남근중심주의가 함께 여성 수난을 구성한다는 것과 결국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력으로서의 제국주의가 남성중심 가부장제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회의 그룹들을 암시하는 말로 '열등한 서열'이란 의미를 갖는다. 하위주체란 농부, 노동자, 해계모니에 접근이 불허된 다른 그룹들을 가리킨다. Bill Ashcroft, Griffith and Hellen Tiffin,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 (Routledge, 1998), pp.215~219.

스피박은 그 개념을 응용하여 하위층인 농민들의 의식을 특권화하지 않기 위해 식민지의 사회적 생산에 개입되는 이질적이고 역동적인 층위들을 1. 지배적인 외국인 그룹 2. 전체 인도 수준에서 지배적인 토착그룹(1과 2는 엘리트 그룹에 속함) 3. 지역 수준에서 지배적인 토착그룹(지역 엘리트-하위층) 4. 민중과 하위 계급들(엘리트가 아닌 전체 인도 사람)로 나눈다. 민족공동체 연구에서 배제된 농민들을 여사의 주체로 기술하기 위한 연구가 하위층 연구 그룹의 목표였다면 그것을 제국주의의 계획된 에피스테메의 폭력으로 본 스피박은 인종과 계급, 젠더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하위층 여성에게 말을 걸어 최대한 그 경험을 복원하고자 한다. 태혜숙, 위의 책, 참조.

- 6) 메니키안적 알레고리란 잔모하마드가 마니교도(3세기에 번성한 페르시아의 종교)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가져온 용어로서 고정된 대립을 물신화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자신을 자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제국주의자의 식민주의적 텍스트 안에서 제국의 자아는 선한 것, 질서잡힌 것, 합당한 것으로 표상되고 토착적인 것, 원주민적인 것은 사악하고 어두운 악마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것을 가리킨다. Abdul JanMohamed, "The Economy of Manichian Allegory", Ashcroft, Griffith and Tiffin ed,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Routledge, New York:1995), pp.18-23. 참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잔모하마드의 메니키안적 알레고리개념을 피식민지의 텍스트에 적용시켜 피식민지 텍스트 안에서 드러나는 '제국=악, 가해자로 고정된 대립을 이분법적으로 물신화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쓴다.



어즈버  
문명국이 된 오늘날까지  
방직공장과 기성복 공장  
그리고 또 무슨무슨 공장에서  
우리의 이쁘고 이쁘고 이쁜 딸들이  
저임금과 철야, 잔업에 시달리며  
생산증대 길쌈과 바느질로  
돈받이 달려받이 일삼는 것 아니리카  
구중구필 기계실과 밀실에서  
성폭력과 강간폭력 노동통제 남근에 깔려

어머니 당했어요, 현모양처 되기는 다 틀렸어요, 돈이나  
별겠어요!

기생관광 인당수에 몸던지는 것 아니리카

-고정희의 「사임당이 허날선현에게-이야기 여성사 3」중에서

이 시에서처럼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 폭력과 강간 폭력 남근 통제’와 같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남성중심주의는 결국 제국의 기표로서의 자본과 똑 같은 권력을 가진 것으로써 여성의 몸을 희생시키고 여성의 성 노동을 착취하며 거기에 더하여 ‘민족의 어머니인 여성의 몸은 순결해야 한다’는 순수혈통 가부장 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오히려 피해여성들을 ‘숭고한 민족’의 범주 안에 들여 놓기를 거부한다. 역사의 연옥 속을 떠돌던 환향녀, 군 위안부 여성이 제국/자국 민족주의/남성중심주의에 의해 삼중의 수난을 받았다면 제국의 자본에 의존된 산업화의 연옥을 떠도는 관광 기생들도 역시 삼중의 착취와 억압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생 관광 인당수’라는 은유를 통해 그 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쾌락이나 욕망을 위해서

라기 보다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돈을 벌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제국주의적 조건 하에서 여성이 겪은 이중, 삼중화의 식민화를 위 텍스트는 잘 보여주고 있다.

고정희는 스피박의 지적처럼 스스로 자신의 말을 할 수 없는 하위 주체들의 경험 쪽으로 최대한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할 수 없는 하위 주체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말걸기’를 시도한 한국 최초의 여성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동일성의 환상: 민족주의 담론, 여자의 몸/ 민족의 알레고리<sup>7)</sup>

김승희는 또한 약한 나라의 딸로 태어나 제국의 군대에 자신의 성을 착취

7) 프레데릭 제임슨은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제3 세계 문학」이란 논문에서 “제3 세계의 문학은 어쩔 수 없이 민족적 알레고리 National Allegory로 읽혀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제3 세계 문화 생산물이 보편적으로 가진 것, 그리고 제1 세계의 유추적 문화적 형식으로부터 과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제3 세계의 텍스트들이 모두 필연적으로……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알레고리감하다는 것이며, 내가 민족적 알레고리라고 부르는 것으로 읽혀진다는 것이다. 특히 소설과 같이 널리 퍼져있는 재현의 서구적 기제로부터 발전된 형식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이유로 제임슨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자본주의가 공적 영역으로부터 개인적 영역을 분열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결과로 개인적 운명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항상 공적인 것, 문화와 사회의 전쟁터같은 구조의 알레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Frede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and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Diana Brydon, ed., *Postcolonialism: Critical Concepts*, (New York, Routledge), 2000. pp.541~564. 참조.

그러한 제임슨의 견해에서 제3 세계 문화의 특수성을 간과하게 만들 전체주의적이고 보편화 경향을 본 아이자즈 야하마드는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Aijaz Ahmad, Jameson's Rhetoric of Otherness and the “National Allegory”, Brydon ed., *Ibid.* pp.565~588. 참조. 프레데릭 제임슨의 입장에 따라 이상의 〈날개〉를 분석한 예로 Henry Lim의 “Yisangs Wings Read as an Anti-Colonial Allegory”, *Muæ 1*(Kaya Production, New York), 1995.

당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이라는 ‘동일성의 환상’을 지키고자 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배척당하여 역사의 연옥으로 추방되어 ‘민족’의 바깥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여성 수난을 쓰고 있다.

어머니를 문 밖에  
어머니를 문 밖에  
그렇게 오래 세워 놓다니!

매주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에  
상복 입은 할머니들이 모여 서있다  
비엔나 소년 합창단처럼 맑게 무엇을 지저귀 지저귀하고 있다  
1942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소녀가  
어느 덧 독립 국가의 의젓한 할머니가 되었다고  
기지촌 셋방에서 마이클 이병에게 맞아 죽은 윤금이는  
코카콜라 병을 국부에 꽂고  
우산대로 맞아서 눈알도 빠져 나온채로 죽었다고

비닐 우산은 우산이 아니다  
그 우산만도 못한 나라가 있다  
산마다 봉우리 의젓한 봉분들  
봉분마다 국부에 코카콜라 병이 꽂혀 있다  
아메리카의 남근이여  
마이클 이병이여  
코카콜라이여  
메이드 인 저팬이여

‘문 밖에 계시는 어머니’는 ‘정신대 여성의 몸/기지촌 여성의 몸/ (유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조상의 상징인 신성한 봉분’을 은유를 통해 의미론적으로 겹치게 하면서 여성의 몸을 훼손하는 제국의 남근의 기표들을 일본 대사관-기지촌-코카콜라 산업-메이드 인 저팬 상품들로 상징되는 자본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다양한 식민주의의 힘에 의해 육체가 착취되고 희생된 여성들로서 그들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은 가해자 제국의 권력 뿐만이 아니라 ‘더럽혀진 여성의 몸을 수용할 수 없는’, 단일성 신화를 지키고자 하는 남성중심적 배타적 민족주의 담론이라는 것을 1연에서 환기시킨다.

케네스 마이클 이병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기지촌 여성 윤금이는 질(室)에 콜라 병이 찢어져 있었으며 우산대가 창자를 관통하고 있었고 입안에 성냥이 쭈셔박혀 있었으며 온몸에 가루 세제가 뿌려져 있었다. 이 시에서 윤금이의 훼손당한 몸은 군사적, 경제적 제국주의적 남근들에 의해 훼손되고 또 한번 자국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해 재식민화된 하위 주체로서의 여성 몸의 알레고리나 민족적 자아의 알레고리로 읽힌다.

‘봉분마다 국부에 코카 콜라 병이 꽂혀’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전국의 산꼭대기나나 쇠말뚝을 박았다는 일제 단막 행위를 암시하는 이중적 구절로서 식민주의 시기에는 일제의 쇠말뚝이, 식민 후기 시기에는 코카콜라 병으로 상징되는 거대 자본이 제국의 남근을 상징하는 환유로써 어머니의 몸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중적 언술이다. 코카콜라 병이 국부에 꽂힌 윤금이의 파손된 몸은 젠더화된 국가의, 훼손된 어머니의 몸 즉 민족의 알레고리<sup>8)</sup>로서 이들을 제국주의의 남근으로서의 자본과

8) 프레데릭 제임슨의 제3 세계 문학의 특징으로서의 민족적 알레고리 이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주인으로서의 이상주의에 빠지게 된 제1 세계 문학인 미국문학은 그 주체를 파편화된 주체성의 주인의 환상으로, 고립된 모나드의 빈한한 개인성 체험으로, 집단적 과거나 사회적 총체성을 붙잡을 가능성을 빼앗긴 미래가 없이 죽어가는 개인적 몸 등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장소 없는 개인성’

함께 남성중심의 민족주의 가부장제가 재식민화, 주변화한다는 것은 곧바로 민족 공동체의 단맥, 즉 파괴와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까지를 암시하고 있다.

### 3. 가부장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의 여성

글로벌 자본주의는 국적, 민족, 인종, 젠더 그리고 계급의 격차를 그 핵심에 집어넣고 있다. 이들 변수를 경제의 변수라고 불러 경제의 외부로 몰아냄으로써 경제는 겉보기에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시장은 전혀 젠더 중립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우에노 치즈코는 『가부장제와 자본제』에서 밝히고 있다.<sup>9)</sup> 시장 또한 노동과 마찬가지로 젠더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식민화되어 있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진 고정희는 필리핀 체류<sup>10)</sup>와 여행 중에 경험한 동남아시아의 글로벌 자본주의에 의해 젠더화된 현실, 성 노동으로 희생되는 여성의

---

은 역사의 악몽으로부터의 도피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미국의 문화에 심리주의와 사적 개인성의 투사를 억지로 몰아넣는다고 말하며 그것들은 모두 **상황적**이고 물질주의적일 제3 세계 문화에서는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 바로 그런 점이 제3 세계 문화의 알레고리적 본성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거기서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개인적 체험들이 궁극적으로 집단성 그자체의 체험의 힘겨운 말하기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rederic Jameson, Ibid, p. 562. 참조.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공간**은 군사적으로나 힘의 정치적 측면에서나 제국/자국의 문지방과도 같은 경계선 공간이고 기지촌이란 외국 군사의 영토 가까운 장소는 자국이 제국 군대에게 빌려준 영토이자 자국의 통치력이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토와 가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윤금이의 몸은 개별 여성으로서의 개별성을 가졌다가 보다 '제국에게 빌려준 영토'의 환유로 읽히질 수 있으며 집단적 역사와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면에서 민족적 알레고리로 읽어보았다. 그러나 기지촌 여성과 미군 병사의 성적 관계가 반드시 민족적 자아와 제국의 자아의 문제일 필요는 없고 남성/여성이라는 개별적인 성적 관계일 뿐이기도 하다.

9)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1999), 한국어판 서문 인용.

몸과 착취되는 노동력에 대한 시를 쓰기도 한다.

어느 태양의 나라에서  
아시아의 배고픔을 우는 아이야  
슬픈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아엔  
네 땀줄을 결정짓고  
네 길을 결정짓는 힘이 따로 있었구나  
네가 네 발로 걷기도 전에 아시아엔  
네가 두 손으로 절하며 받아야 할  
밥과 미끼가 기다리고 있구나

-고정희의 시 「밥과 자본주의-아시아의 아이에게」 중에서

문썩마다 번쩍거리는 저 미제 알파벳은  
아시아를 쪼먹는 하나의 음모이다  
거리마다 흘러가는 저 자본의 물결은  
아시아를 목조르는 험법직 강긴이다  
지프니 양철 지붕 밑에  
알록달록 새겨놓은 저 압호문이나  
모든 수피 마켓과 대형 백화점에 면밀하게 진열된 양키즘은  
세계 인민의 기둥서방을 자처하는

- 
- 10) 시인 고정희는 1990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 종 교음악연구소 초청으로 아시아의 시인 및 작곡가들이 모여 벌인 '탈식민지 시와 음악 워크숍'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글쓰기를 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머무르는 동안 태국, 인도네시아, 자바, 싱가포르 등지를 혼자 여행을 했다고 한다. 그러한 동남아시아 여행 체험 속에서 유작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안에 게재된 「밥과 자본주의」연작시가 태어났다. 조형 외 역음,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또 하나의 문화, 1993) p.47.

매판자본의 매춘문화이다

.....(중략).....

우기의 홍수 보다 무섭게

아시아의 뉘를 점령해버린 칼,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메이드 인 저팬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고정희의 시 「브로드웨이를 지나며」중에서

위의 두 시 텍스트에서 고정희는 제국의 자본에 의해 아시아 여성은 전지구적 생산 시스템 속의 하위 주체로 재식민화, 주변화되었음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제국주의 자본의 구조적 지배 아래 있는 시스템 하에서 가난한 아시아 여성은 노동시장과 성 노동 시장의 피착취 계급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수난을 노래한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 바깥의 밥의 가능성은 아시아의 어린 소녀들에게 아예 없는 것이다. 그 시스템 안에서 하위 주체로 태어난 이상 그 미끼를 무는 수 밖에 다른 생존의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 텍스트는 그토록 강한 메니키안적 이분법을 보여주는데 양키즘=음모자, 강간자, 기동서방, 매판 자본, 칼로 은유되며 아시아 여성=배고픈 자, 피해자, 매춘녀로 은유된다. 그러나 고정희는 제국의 남근, 즉 자본가로서의 양키즘이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메이드 인 저팬,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로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읽어내어 그 메니키안적 알레고리의 단순성을 극복한다. 그러한 제국주의 자본의 범주 속에 '메이드 인 코리아'도 진입하게 됨으로써 한국도 근대적 산업화에서 어느 정도 우세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럼으로써 젠더화된 저개발국에 대해 자본의 남근중심적 야수성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 반성케 한다.

저개발 국가에 밀려드는 자본의 남근적 폭력성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어느 강대한 국민국가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바로 자본주의 그 자체가 제국주의의 남근적 지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가부장적 자본주의도 미국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으리라는 것을 시인은 인식한다.

제국의 자본에 의해 수동적으로 젠더화되어 있는 아시아의 여성적 현실 속으로 서구 제국의 남성들은 에이즈 혈청 보유자로 비유된다. 그러한 에이즈 혈청을 보유한 제국의 백인 남성이나 패전한 후 군대 위안부를 각지에 버리고 도망가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식민주의 권력의 남성성을 상징한다면 “아시아 여자가운간을 당하고 있는 동안 희망같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아시아의 남자들은 여성적으로 젠더화된 타자 남성을 상징한다.

“서구 대륙의 에이즈 파도가 엄청난 부피로 하선되고 하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에이즈 혈청을 휴대한 백인 남자들,/ 배 위에 배 하나를 더 얹은 듯한 배불뚝이 남자들이며 백발이 성성한 늙다리 남자들이 젊고 가냘픈 아시아 여자들을 사타구니에 끼고 합법적인 운간을 즐기는 동안, 아아 아시아의 남자들은 문 밖에서 담배같은 희망 혹은 희망 같은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니는 문득 시이판이니 오기니와 섬으로 끌려기 수중고혼이 된 어시어 여자들이 남긴 비명소리, 아슬아슬한 절벽에 몸을 던지며 최후의 일성으로 외쳤다는 어머니~ 어머니~ 하는 울부짖음을 푸에르토 갈레라 파도 소리 속에서 들었습니다.”(고정희의 시 「밥과 자본주의-푸에르토 갈레라 쪽지」중)

아시아 여성이라고 해도 다 같은 동일성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소국의 여성이라고 해서 강대국 남성에게 다 약자의 위치에 처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고정희는 자본주의체적 근대화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리하여 산업화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아시아의 현실을 하위 주체들을 중심으로 젠더화하여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김승희의 「신촌 맥도날드 점」에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제국의 권력과 유색 인종 여성, 자본주의 종주국과 피식민지적 현실의 관계이다.



맥도날드가 신촌 로터리에까지 와있구나.  
피흘리며 허공 중에  
숫구쳐 매어달린 젓가슴.  
여기까지 먹여주려고 어느 새  
반도에까지 맥도날드가 왔구나.  
나 보다는 더 먼저  
도착해  
금빛 유방을 보란 듯이  
반도의 하늘에 걸어놓은 맥도날드여.  
.....(중략).....  
뉴 멕시코를 달리던 어느 밤,  
어둠을 달리고 있던 나의 허기진 얼굴 위로  
어느 숲을 돌자 네온의 기가 와락 쏟아져 내리던  
금철한 네온 유방이여.  
어머니의 피흘리는 땀상이여.  
그날 먹은 빅맥은 하나의 성찬식, 배를  
채운 금빛 기운으로  
어둠을 지나고 숲 또 대평원을 달려 산타페,  
그리운 나의 산타페에 입성하였으니.  
그러나 그리운 산타페. 나의.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는 그런 곳.  
스페인 기병대에 학살당하고 능욕된.  
학살은 옛날 옛날 그 옛날에 이미 완결되었고  
산타페 박물관은 학살 박물관, 5?18 기념 박물관,  
용산 전쟁 박물관  
이미 찢어진 홍인의 어머니와 딸들의 유방  
식민지의 유령이 떠돌며

담요와 벽걸이와 은세공 목걸이들을 파는 것을  
보았는가.  
모카신을 신고 아직도 대평원을 날아 다니는  
인디언 처녀들의 유명이여. 전사여. 관광 상품이여.

식민지의 입들이여.  
맥도날드여, 나는 너를 특별히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피식민의 유방들은  
어디에서도 지금도 능욕되고 있을 것이다.

대로에서 잘려진 유방은  
1980년 광주  
좌유방부자창 우측흉부 관통상  
열아홉살 처녀 손옥례만의 것은 아니다. 아니지만.

신촌 로터리에 서서  
나의 허공에 전시된 너의 금빛 유방을 바라보면서  
원주민을 말할해서는 안된다.

원주민을 베풀어주어야 한다-는  
먹이는 제국주의. 강간이 아닌 유혹으로

이제 정책을 바꾼.

나는 지금 좀

그런 얼떨떨한 제목으로 서서

내 식민지의 허기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김승희 시 「신촌 맥도날드 점」중에서

금빛 바탕에 빨간 M자를 그려놓은 맥도날드 로고는 후기 산업화 시대 최고의 패스트 푸드 산업의 상징이며 세계인의 입맛을 길들인 자본주의의 하의 '먹여주는' 어머니(M자는 맥도날드 가의 M자이기도 하지만 Mother의 M

자로 읽을 때 ‘우리를 먹여주는 자’ 혹은 ‘먹는 곳’이라는 함의가 발생한다)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내은 유방일 수 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토착민들의 입맛을 순수하게 잡아끌어도 그것은 결국 제국주의의 유방이자 제국의 유혹의 기표일 뿐이다. 맥도날드 로고에 그려진 M자체는 약간 변형되어 여성의 젖가슴처럼 봉긋한 관능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M자에서 읽을 수 있는 여성성, 모성성은 시인의 상상력 속에서 허공 중에 떠있는 젖가슴-절단된 젖가슴-훼손당한 여성성-광주에서 젖가슴이 절단되어 죽은 손옥례-뉴 멕시코에서 스페인 기병대에 의해 능욕당하고 죽은 토착 아메리칸 여성이라는 ‘피식민 여성들’의 수난의 연상으로 전개된다. 역사적 폭력이든 자본주의적 폭력이든 결국 남근중심주의적 폭력과 유추적인 것이라면 산타페에 있는 역사 박물관은 5.18 기념관과 다를 바가 없고 광주 항쟁 때 희생당한 손옥례의 유방은 스페인 제국주의에 의해 학살된 토착 아메리칸 소녀의 피에 젖은 젖가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 4.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하의 제국의 부름: 유혹의 식민화와 상상적 주체성<sup>11)</sup> 형성

11) 라캉의 입장에서 주체성 형성이란 거울 단계를 통한 상상적 단계, 즉 2자가 합일되어 있다는 통합의 환상 단계를 거친 다음 언어를 통해 큰 타자나 아버지의 법으로 다가오는 문화적, 사회적 질서 즉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상징계나 아버지의 이름으로의 진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아적으로 거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 나르시시즘적이고 환상적 동일시에 빠져있는 미숙한 주체라고 부르며 세계를 객관화시킬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Sullivan, Jacques Lacan and the Philosophy of Psychoanalysis, (Illinois u. p., 1987). 참조.

따라서 백인 스타들이 등장하여 최고로 환상적인 미장센을 연출하는 제국의 화려하고 자유주의적인 대중문화를 거울처럼 보고 자라난 유색 여성들이 특히 전세계의 여성들을 소비자로 최고로 우아하게 호명하고 있는 광고 스크린의 황홀한 부름과 유혹의 기표들로부터 자신을 객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한 거울 작용에 어릴 때부터 노출된 경우 자신의 주체성의 타자화, 소외화, 식민화 현상조차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대중 문화의 영향권 안에서 이미 주변부/수용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끊임없이 제국의 문화의 상징계로부터 주체성 형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제3세계의 현실은 이제 제국=가해자, 지배자, 수탈자라는 단순한 매니키안적 비유로만 형상화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세계화는 근대적 문화의 핵심에 놓여있고 또한 문화적 실천들도 세계화의 핵심에 놓여있다. 세계화의 특징은 복합적인 연결성을 가진 것으로 근대 사회의 경험적 조건 안에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물건들, 자본, 사람들, 지식, 이미지들, 범죄, 공해(公害), 마약들, 패션들, 종교들 등 모든 것들이 재빨리 국토의 경계를 넘고 있고 상호 연결과 복수(複數)적 연결을 그 특징으로 한다. 초국가적 네트워크들, 사회 운동과 관계는 아카데미에서부터 성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그 연결은 확장되어 있다. 개별 민족 국가의 틀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움직이는 자본의 막강한 힘 속에서 민족주의, 반제국주의, 매니키안적 대립의 단순한 시각 등이 효과적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또한 제국의 가장 강력한 남근으로 거대 자본과 초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제3 세계의 민중, 아시아의 하위 주체들조차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소비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제국과 주변부 사이의 관계 양상에 엄청난 변화기 오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 제1 세계의 생산품들은 진지구적 스타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낸 광고를 통하여 하나의 소비재의 차원을 뛰어넘어 텔레비전 스크린의 거울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제3 세계 여성들을 호명하는 기제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 니나리치가 부른다

향기로운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크리스찬 디올이 부른다

불란서 멋쟁이로 꾸며 보겠다고

피에르 가르망이 부른다

나이키가 부른다

엘리자베스 아덴이 부른다

환상 창조-이브 탄생

에스터 로데가 부른다

너, 너, 너를!

왜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속이세요, 속여요, 당신의 나이를,

오일 어브 오레이가 너를 부른다

랄프 로렌이 너를 부른다

캘빈 클라인이 너를 부른다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너를 부른다

조지오 알마니의 페이지즐리 무늬의 매트레스를 구입하라고

랄프 로렌 침대 시츠

캘빈 클라인 포푸리

게스의 기저귀 선반

다나 캐런의 티세트

크리스찬 디오르 디너 웨어

글로리아 밴더빌트의 야외용 가구

아, 나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

저렇게 많은 세계적 유명인들이

나, 나, 나를 부른다

-김승희의 시 「제국주의가 간다」 전문

이러한 달콤한 호명 기제를 통하여 유색 인종/ 여성들은 점점 더 제국의  
유혹의 기표의 부름을 따르는 소비적/ 순응적 존재가 되어가며 그러한 것을

단계의 상상적 작용을 통하여 자신이 더욱 더 제국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타자화, 주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점점 더 동경, 선망, 모방의 단계를 거쳐 드디어 동일시되어 감을 인식조차 못하게 된다. 재식민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고정희는 「밥과 자본주의-왜밥, 왜자, 왜교를 경고함」에서 거대 자본에 의한 재식민화 현상에 대해 경고를 퍼붓는다.

자고로 왜밥은 신민을 만든다(아시아 바람의 전언)

유사 이래 왜자는 매국을 만든다(마닐라 통신)

초지일관 왜교는 낫짓밥을 만든다(차이나 유언비어)

경고한다 경고한다

한국 전국토에 퍼져있는

코끼리 밥통 속의 왜밥

전자 공학 속의 왜지

소니음향기기 속의 왜교를 경계하라

그러한 제국 자본의 재식민화 현상을 고정희는 ‘악령의 통일’이라 부르며 “악령의 자본이 시대를 제패한 후/...../ 악령태평천국 박제수술대에 누운 어린 영혼이/ 새시대 주기도문을 받아 외우네/ 세계는 이제 악령의 통일로 가고있네/지적이고 우아하며 또 귀족적인 환상으로 사랑으로 “라고 어마어마한 자본 제국주의의 우아한 식민화 현상에 체념 섞인 고통을 표하고 있으며 ”지배와 권력과 행복의 근원이 영원히 자본의 식민 통치에 있습니다 “라고 주기도문을 패러디하여 우리 시대에 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자본의 식민통치를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또한 고정희는 제국주의 문화에 대해 환상적 동일시 기제에 빠져있는 유색 인들의 뉘를 깨우기 위해 “경보 장치가 없는 아시아에서/ 시장마다 번쩍 거리는 저 외제 상표는/ 아시아 사람들의 희망이 아니다/ 거리마다 흘러가는 저 팝송 가락은/ 아시아 사람들의 신명이 아니다/ 칼자루를 진 제국의 음모가/ 종말처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한다. 자국 문화 보다 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자국 상품보다 제국의 상품에 열광하는 제3 세계인들의 제국에의 동일시 환상을 깨고 그 배후에 들어있는 제국의 칼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지구적 자본주의 하에서 토착순종주의나 민족주의, 반-제국주의적 서사만으로 글로벌 자본주의의 가부장제 하에 제국주의의 기획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대항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또한 문화적 식민 지배와의 일상적 대면 속에서 제국의 유혹의 기표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문화적 통합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자체도 제3 세계 여성을 억압하는 상황과 제국의 다중적 압력 안에서 어떻게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가부장 사회에 대항하는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적 시각을 정립하고 대항 담론을 생산하며 정체성을 정립할 것인가? 제국주의의 조건 하에서 여성들이 겪는 이중 식민화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여성 주체들을 식민화시키는 담론에 대한 인식과 그 전복으로서의 대항 담론 생산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하겠다. 제국/남성중심/민족주의/자본주의 담론에 대해 대항 담론을 생산하고 전복적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희의 시 「나는 그를 제국주의자라 부르려다」가 보여주는 것같은, 텍스트 안의 ‘그’라는 삼인칭 대명사가 함축하고 있는 무수한 남근중심 권력들을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검색해내는 지성을 갖는 일, 즉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적 인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그는 나를 골라/어린 가지들은 휘고 비틀어/굵은 철사로 칭칭 감고/제 마음에 안드는 억센 가지들/무성한 잔뿌리는/씩둑씩둑 잘라내고/더이상은 헛뿌리도 뺄 수 없는 곳에/ 옮겨심는다//때때로 그는 내게/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고/ 빛을 향해 새로 돌는 싹눈은/ 사정없이 떼어버린다// 오, 나는/  
접목된 남의 꿈을/꽃피우고 열매맺는다.//내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를 키  
우는 그를/ 나는 제국주의자라 부르려다.”

■ 필자 : 서강대 교수



Abstract

Reading the Phallus of Imperialism  
in the Modern Korean Female Poets' Texts

Kim, Seung-Hee

The purpose of the present thesis is to explore the problem of the persecution of women in the Korean female poets' poems from the viewpoint of postcolonial feminism. The problem of 'women's persecution' in the Korean female poetry cannot be assessed only by the interpretation of imperialistic assault of the phallus. It should be analyzed within the context of multi-discourse of the Korean patriarchal ideology, traditional sex discrimination,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Korea assisted by imperialistic powers, global capitalism, and nationalism.

Thus the present paper examines how imperialism and nationalism, along with patriarchal capitalism, are largely responsible for the Korean women's persecution by drawing on various texts. It analyzes Ko Jung-hee's "The Spring of Chirisan" and "Declaring Women's Liberation" which most poignantly and successfully indict the imperialistic powers in the Korean history and modernization process. It also deals with the sufferings of Asian women who have been forced to play only a minimal role in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by the imperialistic phallus powers, referring to Ko Jung-hee's serial poem "Rice and Capitalism." Using the text of Kim Seung-hee's "Mother Standing Outside the Door," the paper also explores how the discourse

of the “homogeneous” nationalism ostracizes women’s body already impaired by the imperialistic powers, It reads the ‘body’ of Yun-gum, who is brutally murdered by a mentally deranged American soldier, as the allegory of the nation doubly colonized. Finally, it calls for the attention to the postcolonial feminism by examining the seductive appellation mechanism in the age of global capitalism and telecommunication where the imperialistic pop culture is already invading.